위 대 한 수 령
김 일 성 동 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15호 【루계 제23067호】 주체99 (2010) 년 4월 25일 (일요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건군절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훈련장에는 무적필승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훈련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된 군부대군인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군인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강군, 강철의 정예대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 주규창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관람대에 오르시여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시작구령이 내리자 각종 지상포들의 위력한 협동타격에 의하여 《적진》은 삽시에 무너지고 불바다로 변하였으며 땅크를 선두로 한 도하집단이 멸적의 포화를 날리며 강을 단숨에 극복하였다.

훈련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단 한치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말 멸적의 투지에 충만된 인민군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주었다.

군부대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나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참관자들은 우리 군대의 필승불패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군사훈련을 보면서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었으며 탁월한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천만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군군인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습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킬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한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자라났을뿐 아니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하시면서 근 80년에 걸치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강철로 다져진 이 무적의 강군을 가지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건군절을 축하하여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군부대지휘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친히 자기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영원히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조국보위성전에 한몸 다 바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건군절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 선 로 동 당 총 비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각 하

각하

나는 당신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전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 샤 르 알 아 싸 드

2010년 4월 22일 디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2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이딸리아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결성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딸리아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10일 헤르모시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결성식장에 전시되여있었다.

결성식에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아지부 대표 흘라비오 뻬띠나리, 이딸리아공산주의자당 헤르모시위원회 비서 렌조 인떼르렌기, 기타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흘라비오 뻬띠나리가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조 책임자로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백두산천출위인의 기상과 의지
국제사회계가 격찬

국제사회계는 강한 자주적신념과 의지, 드센 배짱과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격찬하고있다.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청년소조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태여난 고장을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정일각하께서는 신통히 백두산을 닮으시였다.

천만산악을 거느린 장엄한 모습과 신비한 자연현상들로 하여 사람들을 한없이 매혹시키는 백두산은 그대로 웅대한 포부와 비범한 예지, 억센 담력과 강의한 의지, 무한한 포옹력과 완벽한 통솔력을 지니신 김정일각하의 풍모와 기상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블레찐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억척같은 배짱을 지니고계신다, 그이의 신념과 의지는 천만대적의 도전이나 위협공갈앞에서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일떠서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싸운다면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배짱, 불은 불로 다스리고 힘에는 힘으로 맞서며 총대는 총대로 제압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 이것이 그이의 담력이고 배짱이다고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오브저버》는 김정일령도자의 비범한 관찰력과 통찰력, 분석력과 판단력, 선견지명있고 담대하면서도 여유작작한 정치, 신묘하고 령활무쌍한 령도예술은 조선인민이 그 어떤 엄혹한 환경에서도 용기백배하여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고 평하였다.

캄보쟈신문 《인민》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뛰여난 담력을 지니신 령장이시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조선의 드림없는 자세와 립장은 철두철미 령도자의 담력에 기인된다.

지난해에 있은 조선의 성공적인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의 경우가 그를 실증해준다.

이란 국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백두산형의 장군이시며 그 존함만 들어도 일제침략자들이 벌벌 떨던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심을 현실을 통해 더욱 절감하고있다,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조선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뀐란드신문 《깐싼 애애니》는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조선의 위력의 원천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는데 있다, 조선의 위력은 곧 김정일동지의 위력이다, 그이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에 조선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고 전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자그마한 주저나 동요도 모르고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과 의지는 바로 백두산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기상이고 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걸출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에도 굴함없이 백전백승하고있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탁월한 선군정치로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반제자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와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가 12일 공동으로 블레찐을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불패의 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93년 4월 9일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때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세계에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20세기말 세계정치구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은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든것처럼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기치가 계속 휘날리였다.

사상에 선차성을 부여하시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는 승리적으로 전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그이께서 확립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적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였으며 그 누구도 덤벼들지 못하게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더욱 굳게 다지였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난해 4월에 펼쳐진 조선의 축포야회는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고야말것이다.

블레찐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성이 철저히 고수되고있으며 철갑상어양어장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물고기생산기지들이 도처에 꾸려져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들도 편집하였다.

본사기자

사 설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백전백승의 력사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불멸의 전투적위훈으로 빛나게 수놓아져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세를 벌리는 시기에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8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운명개척과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적인 혁명무장력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무적의 군력에 의거하여 백전백승하는 선군조선의 긍지높은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이하게 되는 올해의 건군절은 우리 인민에게 류다른 감회와 격정을 안겨주고있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대경사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시기에 장쾌하고 황홀한 축포야회로 뜻깊은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한 우리 인민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승리에 대한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의 강력한 핵심부대, 강성대국건설의 기둥으로 위용떨치고있기에 우리 인민의 오늘과 래일의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고 우리 조국이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는것이다. 주체적인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군대부터 창건하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백전백승의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근 80성상에 이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전투적행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참다운 혁명무력으로, 무적필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적군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군대를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불세출의 령장이시다.

혁명위업수행에서 총대의 결정적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개척하시면서 군대부터 먼저 창건하시고 무장대오에 의거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대로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도 실현하시고 군대에 의거하여 당과 정권건설위업도 수행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도 마련하시였다.

선군의 혁명원리를 구현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비범한 령군술에 의하여 우리 군대는 창건된 첫날부터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대로서 반제군사전선에서뿐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백두의 전설적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령도밑에 류례없이 격렬한 반제혁명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모르는 련전련승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새 조국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에서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겨온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더없는 영예이며 긍지이다.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총대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정치적핵심력량으로 위용떨치게 하신것은 건군의 어버이이시며 불세출의 정치군사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업적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력사는 혁명의 맨 앞장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군대는 창건 첫날부터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것을 자기의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왔다.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충정에 기초하여 조직된것이 우리의 첫 무장대오였으며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온것이 우리 혁명군대이다. 준엄한 항일대전과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 어려웠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높이 발휘된 인민군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가 언제나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질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조국이자 수령이고 수뇌부옹위이자 혁명의 승리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군대는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남먼저 추켜들수 있었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고귀한 전통을 끊없이 빛내여올수 있었다.

수령옹위를 삶의 제일차적요구로 삼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은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우리 일심단결의 기초가 되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떨쳐나서는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영원한 좌우명이며 드림없는 신념이다. 혁명이 아무리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군대가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끊없이 이어질것이며 선군조선의 력사는 언제나 위대한 승리와 기적의 영웅서사시로 수놓아질것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투쟁력사는 반제혁명전쟁과 계급투쟁에서 백승을 떨쳐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우리 군대는 반제대전의 불길속에서 창건되고 강대한 제국주의와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강화발전된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우리 군대는 근 80성상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백승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왔다. 청소한 우리 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대전과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일제와 미제를 타승한것은 20세기의 군사적기적으로 반제혁명전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제국주의와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장애와 끝없는 헌신으로 수놓아진 그 잊을수 없는 로정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최고사령관과 일심동체를 이룬 동지애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고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최강의 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면모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양양한 전도와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싸워 이기는 불패의 혁명강군이다.

적과의 싸움은 무엇보다 두뇌의 대결, 군사적지략의 대결이다. 우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한 혁명군대만이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긴다.

일찌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를 격멸한 백두의 신출귀몰하는 전법에 정통하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령활무쌍한 전법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위대한 백두령장의 군사적예지가 집대성된 주체전법으로 백승을 떨치고있다.

백두의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전략전술은 적들의 그 어떤 《선제공격》도 일격에 제압하고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는 전법이며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고 대항할수 없는 창조적이고 천변만화하는 전술이다.

지금 제국주의와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수호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백승의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군대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도 우리 식의 타격방식과 전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무비의 공격정신과 담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무적의 혁명강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신념과 드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우리 인민군대의 공격정신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양보와 후퇴를 모르는 강의한 공격정신이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순간의 멈춤도 없는 드세찬 공격정신이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원쑤들과는 지구상 어디에 있건 끝까지 결판을 내겠다는 결사의 투지와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전격적으로 강행돌파하는 우리 군대의 백두의 공격정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당해낼수 없다. 세상에는 우리 군대처럼 신념이 강하고 배심이 든든하며 적들에게 무자비한 혁명군대는 없다.

오늘 우리 군대의 강경고압의 자세와 멸적의 의지앞에서는 어떤 원쑤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제국주의원쑤들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멸적의 불소나기로 단숨에 격파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의 단호한 결심이다. 일단 싸우면 적의 아성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우리 군대의 백두의 담력과 기질앞에서는 어떤 침략자도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군민일치사상으로 싸워 이기는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이다.

군민일치는 혁명군대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이며 전선과 후방, 종심과 측이 따로없이 진행되는 현대전에서 백승을 떨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군민일치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군민대단결을 실현한 혁명무력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혁명의 수뇌부를 근본핵으로 하고 천만군민이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운명공동체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 기풍의 일치가 실현되고 원군원민의 기풍이 높이 발휘되여 우리 사회의 밑뿌리는 더욱 굳건해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철통같은 일심단결의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다.

군대는 원민을 하고 인민은 원군을 하며 군대와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군대가 강하고 우리 혁명이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고있는것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아무리 악랄하게 벌려도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우리의 군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현대전에 필요한 전투기술기재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국방공업으로 다져지고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실현되여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50성상에 이르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우리 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 혁명강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주력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의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다져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는 시대,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을 눈앞에 바라보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가 있고 무궁무진한 위력을 지닌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당의 선군령도따라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뜻깊은 올해에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를 더욱 힘있게 벌려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업적은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백전백승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군대부터 먼저 창건하시고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백두의 선군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업적과 경험을 지침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는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선이며 인민군대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행복이 있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

우리는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과 업적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을 간직하고 백승을 떨치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온 사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요구대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백두산혁명강군인 인민군대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최정예혁명강군으로서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해로 빛내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언제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군민대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 혁명의 위력한 보검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사상정신과 도덕, 투쟁기풍과 일본새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좌우명으로 삼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껏 원호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국방공업에 계속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국방공업을 선군조선의 자주적존엄과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성대국의 믿음직한 병기창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교조사상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총공세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뜻깊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진격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며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는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알곡, 축산, 과수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밑뿌리라는 자각을 가지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맡겨진 초소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가 있기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붉은기를 배경으로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경축 78돐》이라는 글발, 조선인민군 모표모형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륙해공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인민군후방가족들, 원군미풍공로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김영일동지, 김영춘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리영호동지, 김정각동지, 김일철동지, 최태복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김기남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들,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혁명무력강화에서 공로있는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영웅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건군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공동사설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군 창건 78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근 80성상의 장구한 로정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자랑찬 행로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승리와 영광의 력사입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우리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주체위업을 총대로 끌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준엄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쳤으며 오늘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인민군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주체적군건설사상과 선군령도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선군혁명의 전위부대, 주체혁명의 주력군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군위업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선군령도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군사의 영재, 희세의 전설적령장이십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비범한 예지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혁명원리를 밝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주력군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혁명이 선군의 길로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이였으며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실현되였으며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며 전진해나가는 선군혁명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주도적력량으로 급속히 장성강화된 조선인민혁명군은 강도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무장투쟁에서 군사적위력을 높이 떨치였을뿐아니라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수행에서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에서 포악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한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주체적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였으며 총대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찬란한 앞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으로 나라가 분렬되고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해방후의 복잡한 정세추이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건설위업을 실현하고 자체의 국방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새 사회건설의 위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습니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승리의 작전도를 펼쳐주시고 포연이 흐르는 전선들을 찾으시여 무적의 용맹과 백승의 지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전장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빛나는 전승을 이룩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의 승리인 동시에 천출명장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였으며 세계적판도에서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은 정치군사적기적이였습니다.

군사력강화를 나라의 흥망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군에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우리 혁명의 전위부대로 키우시였으며 자위의 군사로선과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무적의 군력을 다져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준엄한 력사의 풍랑속에서도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원쑤들의 도전과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무장으로 튼튼히 담보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불패의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여놓으신것은 조국과 혁명앞에 이룩하신 업적중의 가장 귀중한 업적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하여 일찌기 반세기전에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로 나섰던 시기에 전군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장에서 받들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여온 성스러운 로정에는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저히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백두의 담력과 의지,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대의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발전의 눈부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세계정치구도의 급격한 변화와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반제군사전선이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기본전선으로 된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였습니다.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로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전군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주체전법을 능숙하게 구현하여 그 어떤 현대전에서도 백승을 떨칠수 있는 무적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오만한 침략의 무리들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가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군사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에서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에 기초한 군민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하심으로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눈부신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인민군부대들과 들끓는 대고조격전장들에로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비의 공격정신과 헌신적인 령도는 이 땅우에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우리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총공격전의 최전선들에서 력사에 빛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한 근본원동력이였습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와 제2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우리의 국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창조로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이 높이 떨쳐지는 속에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가 빛나게 결속되고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변들이 일어난것은 백두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안아온 자랑찬 현실입니다.

지난해 12월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정초에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이 《희천속도》, 일당백속도로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전격적으로 강행돌파해나가도록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고 얼마전 또다시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까지 몸소 들어가시여 발전소건설을 앞당겨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에 대한 애국헌신의 전선시찰이였습니다.

선군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과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근위땅크병들의 훈련과 륙해공군합동훈련, 대련합부대의 종합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힘차게 다그쳐지고있습니다.

무적의 철갑대오가 위력한 포화력으로 《적진》을 짓부시며 노도처럼 전진하고 륙해공군의 정예부대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적집단》에 멸적의 불소나기를 퍼붓는 장쾌한 훈련광경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손길아래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상과 무진막강한 위력의 시위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우리 혁명무력의 철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백두령장들의 슬하에서 선군혁명의 기수로 자라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고 인민군대의 선도자적역할에 의하여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잘사는 주체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지고있습니다.

백두산총대의 굳건한 군사적담보가 있어 오늘 온 나라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주체의 쇠물폭포에 이어 온 나라의 대경사인 비날론솜폭포가 팡팡 쏟아져내리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날에날마다 더욱 크게 일어나는 희한한 변들과 더불어 조국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선군정치의 위력에 의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한 조국통일대강들이 마련되고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선군조선의 권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나라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확대발전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신 혁명군대의 위력으로 혁명이 전진하고 승리한다는 철리를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참으로 근 80년에 이르는 우리 인민군대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의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쳐온 성스러운 년대기로 빛나고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간고한 투쟁속에서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하여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인민군창건일을 경축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수령님의 주체적군건설업적과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며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만년초석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이며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총대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군대에서는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받들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조직진행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장병들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육탄결사대로 키우며 전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이 제시한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을 틀어쥐고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강도높이 벌려 만능의 지휘관, 용맹한 싸움군으로 준비하며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최정예화된 혁명강군의 면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민군군인들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의 군민대단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철통같이 다지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적인 도발책동도 일격에 짓부셔버릴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높이 울려나오게 하며 누구나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공동사설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따라 김일성민족의 드높은 자존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조선로동당 만세!

번영의 해, 대변혁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어머니당을 위해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국의 호전세력은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노린 모험적인 북침전쟁계획을 짜놓고 방대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을 끊임없이 들이밀며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날이 갈수록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온 겨레의 통일의지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를 언제 새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조성된 사태는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에 편승하여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민족의 영구분렬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극악한 사대매국역적들이며 조국통일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격파분쇄할 만단의 준비를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온갖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절세의 위인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합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리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오늘은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품속에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며 우리 군대의 영광에 찬 력사를 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백전백승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언제나 백승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로정에는 자기 수령을 한목숨바쳐 보위해온 인민군대의 수령결사옹위의 위훈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우리 군대의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은 1950년대 전화의 언덕을 넘고 전후의 그 어려운 나날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한 항일혁명투사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일성장군 만세!》를 심장으로 부르며 불뿜는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조국의 한치 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리수복, 강호영을 비롯한 영웅전사들,

장구한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였다.

사나운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들을 목숨바쳐 지켜낸 무재봉의 영웅전사들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며 물길굴의 한치한치를 열어제낀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

참으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위훈이 얼마나 값높이 새겨져있었던가.

우리 군인들의 삶의 목적은 수령결사옹위이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구호도 수령결사옹위의 노래와 구호이며 그들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다져진 맹세도 수령결사옹위의 맹세이다.

우리 군대의 이런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끝없는 신뢰에 원천을 두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군인들을 투철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오성산의 가파로운 벼랑길,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끝없는 전선길은 그대로 인민군군인들을 신념의 강자로 키워주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주신 길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건군절의 이 아침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리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선군령장께 최대의 감사를 삼가 드리고있으며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더 굳게 다지고있다.

도도히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대오앞에는 어제나 오늘에나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이 서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다.

인민군장병들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중요전투장들마다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고있고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밀뿌리인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고있으며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이 땅의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이 뜨겁게 어려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인민군군인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의 투쟁기질과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내달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의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은 온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 참된 애국자의 자세를 심어주는 삶과 투쟁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조국청사에 빛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을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인민군군인들은 새해벽두부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있으며 온 나라 곳곳에 원민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가고있다.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에 많은 영농자재와 질좋은 거름들을 보내준 군인들, 인민경제선행판인 철도를 우리 병사들이 심장으로 힘껏 떠밀어주자고 웨치며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철도부문에 보내준 미더운 군인들, 발전소와 탄광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주공전선들에 달려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일터를 들썩이게 하고 애국의 구슬땀도 바치며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준 군인들…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우리 군대》라는 말속에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인민들의 진심어린 존경과 사랑, 더없는 믿음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선군조선의 크나큰 자랑인 우리의 인민군대가 있고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 군민대단결의 힘이 있어 우리는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글 본사기자 정성일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원군미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면서 혁명적대고조전군을 힘있게 선도해나가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있다.

상서청년광산 일군들과 광부들은 높은 애국심과 순결한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우리 초소》 군인들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그들은 광물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속에서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군인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의 전투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 1월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하 30℃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소식은 맹산군사회급양관리소에서 일하는 박경실동무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그는 지체없이 많은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희천의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전투성과를 축하해주었다.

동대원구역편의봉사사업소에서 일하는 리영수동무도 원군사업을 잘하고있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그는 지난 10여년간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뜨거운 지성을 바쳐오고있다.

룡성구역량정사업소에서 일하는 강금숙, 봉천탄광에서 일하는 로희숙, 홍원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손희경, 라진상업관리소에서 일하는 장명숙, 조군실원산공업대학 교원 최성진, 평성시 옥전유치원에서 일하는 김선희동무들과 순천백화점, 함흥제1백화점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원군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의 선군정치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은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보살펴주고있는데서도 발현되고있다.

평성시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들은 17년전부터 평성시 덕성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성의껏 도와주고있다. 그들은 영예군인의 집에 정상적으로 찾아가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진심으로 돌봐주었다.

평안남도인민병원 의사 림동인동무는 지난 12년동안 평성시 역전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있으며 력포구역상업관리소 소장 김화복동무도 력포구역 장진2동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의 가정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도와주고있다.

선군시대 청년으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구장군묵시중학교 교원 리정순, 곽산군의 어느 한 사업소에서 일하는 림순희,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 농장원 고미향, 삼천군에서 사는 오정심동무들은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예군인들의 한생의 길동무가 될 결심을 안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는 이런 아름다운 소행들은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억센 의지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마음을 언제나 전호가에 두고

문덕연유공급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원군사업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

이것은 문덕연유공급소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인민군대를 위한 일이자 자신을 위한 일이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은 원군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며 원군의 미풍속에 선군시대가 빛난다.》

소장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원군열의는 부피두터운 《원군일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였던 10여년전부터 그들의 원군기풍은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진두에 서시여 끊임없이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원군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초소는 비록 멀리에 있어도 전호가의 병사들을 위하는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종업원이 몇명 되지 않아 한명이 두세몫씩 맡아하는 바쁜 속에서도 원군사업은 놓치지 않았다. 《우리 초소》의 군인들이 병실과 세목장, 식당 등을 새로 일떠세울 때에도 많은 건설자재들을 보내준 사실이며 군인들이 군무생활에서 자그마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관심을 돌린 이야기는 《원군일지》의 갈피들에 아름답게 수놓아져있다.

원군사업의 앞장에는 리정복동무가 서있다. 제대군인인 그는 공급소사업전반을 보살펴야 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초소에서 헤여졌던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원군사업을 벌렸다.

그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에도 진심을 바쳐가고있다.

공급소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였다. 그는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가 건강상태며 치료정형, 생활형편을 알아보고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도와주었다. 출장길에서 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약재를 마련하여 안겨주기도 하였고 부식물이며 땔감 등이 떨어질세라 진정을 기울였다.

조국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의 위훈을 떠나 나라의 안전도, 가정의 행복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하기에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군사업을 공민적본분으로, 응당한 도리로 여기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는 《우리 초소》의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입맛을 돋구는데 좋다는 물고기며 첫물파일도 보내주었다. 원호물자마다에서 고향집부모의 다심한 정을 느낀다는 병사들의 편지를 받아안을 때면 종업원들의 가슴은 젖어들군 한다.

초소는 멀리에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전호가에 잇닿아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조선인민군협주단 경축공연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협주단 공연이 24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백전백승의 기치 최고사령관기를 진두에 휘날리며 강성대국의 력사적승리를 마중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하는 인민군장병들의 크나큰 감격을 전하는 설화에 이어 《조선인민군가》의 합창으로 공연은 시작되였다.

무대에는 혼성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남성중창 《조국보위의 노래》, 무용 《나의 증기》, 《행군 또 행군》, 독창과 방창 《붉은 철령》,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가야금병창 《선군승리 웅혜야》, 혼성2중창 《승리자로 만납시다》, 남성독창 《단숨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혁명군대의 예술인들은 주체적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여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총대의 위력으로 내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빛나는 전통을 감회깊이 되새겨주는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자랑과 신뢰심에 넘쳐있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신념,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일당백용사들의 불패의 위용과 멸적의 투지, 전투적기백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장내에 혁명적열정과 량만이 차넘치게 하였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를 안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혁명의 강위력한 전위대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혼성합창 《조선의 행운》, 《강성대국이 보인다》,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희세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갈 철석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후방가족의 본분을 지켜

맡은 일을 언제나 책임적으로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김봉화동무는 온 농장이 칭찬하는 성실한 농장원이다.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된 자식들앞에 떳떳할수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안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그는 해마다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를 마련하면서 부림소마리수를 늘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왔을뿐만아니라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름생산에도 자기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그는 오늘도 인민군후방가족의 본분을 지켜 농사일을 성실히 해나가고있다.

다섯딸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리원군 염성협동농장 농장원 리종남동무의 가정에는 남다른 자랑이 있다.

그것은 다섯개의 조선인민군 입대증이다.

언니들의 뒤를 이어 막내딸이 초소로 떠나던 날 리종남동무와 그의 안해 김정옥동무는 당부하였다.

《조국을 지키는 길에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거라.》

초소에서 자식들의 위훈이 담긴 편지가 고향으로 날아올때면 부모의 기쁨은 더욱 커간다.

오늘도 그들부부는 조국방선을 지켜선 딸들앞에 언제나 떳떳하기 위하여 인민군후방가족답게 누구보다도 농사일에 앞장서고있을뿐아니라 인민군대원호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원군사업을 힘있게

구성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원군사업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원군사업을 잘해온 이들은 올해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성의껏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들의 지성이 깃든 원호물자들을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후방의 부탁과 기대를 잊지 않고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갈 맹세를 담은 편지를 보내여왔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으면서 그 앞장에 인민군후방가족들이 서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24일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손연풍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무관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여러 무관들의 나라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스위스련방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도리스 로이트하르드 스위스련방 대통령에게 서세평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0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도리스 로이트하르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스위스와 조선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스위스는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며 경제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실한 교육자

삭주군 옥강중학교 소학반 교원 최국선동무

삭주군 옥강중학교 소학반 교원 최국선동무는 30여년을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선군시대의 참된 교육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소학반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건에서 어린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교수준비와 과외학습지도를 알심있게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그들의 생활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몇해전 최국선동무는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맡게 되였는데 그들속에는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학생의 등교를 보장하는데 헌신의 땀을 바쳐왔다.

다심하고 응심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교육자이기에 최국선동무를 누구나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성건

변함없이 걷는 원군의 길

3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원산시직매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원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지배인 최향, 당세포비서 김옥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찾아 원군사업을 진행하여왔다.

뜻깊은 올해의 건군절을 맞으며 이들은 군인건설자들을 위하여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벌써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에게로 달리고있다.

이들에게는 지금 정성다해 마련한 첫 원호물자를 군인들에게 보내주던 때의 일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진다.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친 군인건설자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원군사업을 더 힘있게 벌릴 결의를 다지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들은 변함없이 원군길을 이어왔다.

그 나날에 이들은 수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조국보위초소들에 보내주었고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하기에 이들은 오늘도 부피두터운 원군일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맹세다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병사들을 위한 원군의 길을 끌까지 걷고 또 걸으리라.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리순희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꾸바혁명무력 군사대표단 귀국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꾸바혁명무력성 부상 겸 꾸바혁명무력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혁명무력 군사대표단이 2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호쎄 마누엘 갈레고 몬따노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레오나르도 베레스 메싸 대사관무관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우크라이나자주련맹대표단 귀국

바비츠 보그다나를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자주련맹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이 떠나갔다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한편 이날 안충직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을 키우신 희세의 선군령장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어언 78돐이 되였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는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군사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켜오신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지난 기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기의 자랑찬 력사를 뚜렷이 새겨온데 대해 높이 격찬하고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세계적인 강군 조선인민군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필승불패의 혁명강군》,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 《사상과 신념의 용사》…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 혁명무력을 칭송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정세가 복잡다단했던 지난 시기 세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령활무쌍한 지략,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 무모한 군사적간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주체혁명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을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당시 오만무례한 미제는 저들의 《세계화》전략에 합세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하여 갖은 압력과 위협공갈을 일삼으면서 군사적힘으로 제압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횡포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강권과 전횡에 위압되고 주눅이 든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과 당당하게 초강경으로 맞서싸우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조선이였다.

일찌기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시고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거연히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미제가 떠들어대는 힘의 전략에는 힘으로 강경히 맞서야 한다는 강인담대한 배짱과 철의 신념으로 류례없이 간고한 우리 인민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주체적인 선군철학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유일초대국》파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승리만을 떨칠수 있었다.

그렇다. 사회주의조선의 필승불패의 력사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키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수놓아질수 있었다. 이것이 세계 진보적인류가 깊이 체득한 진리이며 이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들의 경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유럽의 한 력사학자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을 보고 흥분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열병식을 보면서 내가 제일 감동깊이 체험한것은 조선혁명무력특유의 정치사상적힘, 단결과 의지의 힘이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이 주석단에 계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 맹세다지며 김일성광장이 떠나갈듯 격정에 넘쳐 웨친 〈김정일〉, 〈결사옹위〉, 이 함성속에 인민군군인들의 삶의 목적과 지향, 최대의 사명이 함축되여있었다. …

확언컨대 이런 군대를 당할 힘은 없다.》

오래동안 세계군사력사를 연구해온 그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조선방문의 나날 그는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남기신 감동깊은 사연들, 폭잠과 꿰기밥에 대한 이야기, 외진 섬초소에 대한 현지시찰, 판문점현지시찰, 사랑의 약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병사들의 사진에 깃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등 그가 들은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그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전사들에 대한 그렇듯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최고사령관이시기에 병사들이 그이를 그토록 따르는것이고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에 대한 절대불변의 의지를 지니신 장군이 키워낸 병사들이여서 그들모두가 투철한 조국결사수호자들로 준비된것이리라.

열병식광장에서 목격한 조선인민군의 그 위력한 사상의 힘, 단결의 힘, 그것은 바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키워주신것이다!》

이것이 그가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찾은 대답이였다.

하기에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였던것이다.

백두산총대의 혈통을 변함없이 이어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의 목소리는 세계적판도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은 김정일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후로의 사상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나라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전군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강철의 전투대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인도네시아의 한 인사는 무비의 담력과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를 받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오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서의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에 감탄하며 인민군군인모두를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특출한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이 세계 여러 나라 신문, 잡지, 불레찐, 인터네트들에 수많이 실리고있다.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을 키우신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업적과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칭송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신 경 섭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히 번영할것이다

에짜도르에서 블레찐특간호 발행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에짜도르 볼룬따드출판사에서 2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블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조선에서 령도자와 로동계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성대국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경제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것은 령도자와 로동계급사이의 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에서 령도자와 로동계급은 일심동체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늘 로동계급을 찾으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에서는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먼저 거기에서 일하게 될 로동자들을 생각하고 작업장을 꾸리는 문제에서도 먼저 로동자들의 마음에 드는가 안드는가를 고려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언제나 로동계급을 내세우고 평가해주시며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해나가신다.

로동계급에 대한 그이의 믿음과 사랑, 그에 보답하려는 로동계급의 각오는 령도자와 로동계급사이의 단결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블레찐은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벽길을 걸으시는 위인》이라는 제목의 글들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지도방법에서 특출한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을 내세우시는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끊임없는 현지지도 강행군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찾으시는데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전하였다.

블레찐은 《동지애의 화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령도자의 동지애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에서 최대로 표현되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였으며 4월 15일을 태양절로 명명하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를 제정하도록 하신데 대해 소개하였다.

블레찐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을 따라 오랜 기간 혁명투쟁을 해온 로혁명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혁명선배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후대들이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로혁명가들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높은 평가의 산 증거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세심한 관심속에 조선에는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이 가장 좋은 곳에 자리잡게 되였으며 여러 단위가 렬사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동지애의 화신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히 번영할것이다.

블레찐은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본사기자

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 진행

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가 19일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성원국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적통합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지난 시기 성원국들이 알바가 내세웠던 협조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한데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통합과정을 적극 추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끝에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태양절과 김일성화명명 45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외무성 인터네트에 글 게재

태양절과 김일성화명명 45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외무성이 1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일성화,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의 상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10년은 김일성화명명 45돐이 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와 조선사이의 친선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김일성화는 1965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김일성주석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선물로 올린 꽃이다.

주석의 존함을 모신 이 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짝 피여나고있다.

태양절로 명명된 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해마다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글은 이번 축전에 문화관광성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문화대표단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인민군부대들과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주조 외교대표부들,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한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정책을 단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7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핵문제에서의 미국과 서방의 이중기준정책을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이스라엘이 2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는데 대해서는 모르는척 하면서 이란의 평화적핵계획은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이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렬강들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고 그는 특히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인 미국을 이 기구에서 제명할것을 주장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수호할것을 호소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가 19일 독립운동개시 200돐기념 열병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수호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더는 양키의 식민지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고 자유와 평등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불가분리적인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군대와 인민은 하나로 단합되여있으며 이것은 오늘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담보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할데 대해 강조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씰바가 19일 《토착민의 날》에 즈음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날 나라에서 《토착민의 날》은 용감한 브라질인민의 투쟁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계기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정부가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앞으로 토착민보호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것을 전문 맡아보는 국가기관도 내올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부당한 정책에 불만

미국인들속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8일 이 나라의 《퓨》연구쎈터가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80%가 당국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것을 주장

영국자유민주당 당수가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반테로전》과정에 외국인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등 불법무도한 행위를 일삼은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이 나라가 내걸고있는 《법치와 공정성, 인권》과는 완전히 모순된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영국과 미국사이의 《특수관계》는 과거시대의 유물로 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 조

중국과 브라질이 15일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고 호상협조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 브라질, 남아프리카는 과학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2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늘어나는 세계빈궁자수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금융위기의 후과로 빈궁자가 계속 늘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20일에 발표된 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세계적으로 약 6400만명의 빈궁자가 새로 더 생겨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정객들의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 참배놀음

일본에서 22일 극우익정객들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집단적으로 참배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이날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되여있는 59명의 국회의원들이 무리로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려 재침의 길에 나서기 위해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란에서

이란에서 올해 3월에 끝난 지난 이란년도에 손으로 짠 주단수출액이 그전 이란년도에 비해 16.8% 증대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A(H1N1)형 돌림감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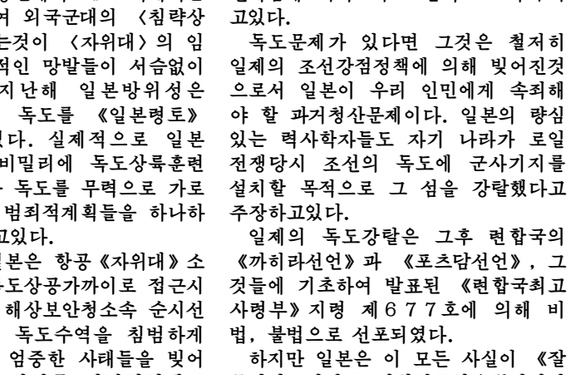
19일 이 나라 보건성은 최근 10일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2 830만명이 신형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5월 21일까지 총 9 000여만명의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한다.

뽈롬비아에서

뽈롬비아의 메따주에서 최근 새로운 원유매장지가 발견되였다. 그 매장량은 2억 8000만bbl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본사기자



에죄르에 있는 수에즈운하의 일부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ㅡ레바논외무 및 이민상 알리 사미가 19일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중동지역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국제공동체가 핵무기를 당장 철폐하고 국제조약을 준수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력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ㅡ뛰르끼예수상 에르도간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핵위협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고 단죄하고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려면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당장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공동체가 이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ㅡ아랍국가련맹리사회가 13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릇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추방시키기로 결정한것은 비렬한 인종주의적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아랍국가련맹은 이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추방조치에 대처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갖 사회악이 휩쓰는 자본주의세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빈궁과 사회적무질서가 날로 더욱 심화되는 사회가 바로 《자유》와 《만민복지》에 대해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해가 갈수록 더해만지는 사회악은 썩고 병든 사회제도자체의 산물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있는 사회적불안과 공포, 생계비인상과 빈궁, 무질서와 혼란은 전도가 없는 부패한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우심해지는 살인범죄

날로 성행하는 범죄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되고있다.

범죄의 《왕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에서는 총기류범죄가 의연 하나의 《사회적류행병》으로 되고있어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3일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안젤스시에서 정체불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한 식당에 뛰여들어 마구 총질을 하여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5일에는 이 시의 한 상점에서 무장강도들이 쏜 총에 맞아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감행되는 살인범죄의 약 70%가 총기류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올해 1.4분기에만도 전국적으로 총기류범죄에 의해 22명이 죽고 3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일본에서도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것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련이어 일어나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3월 2일 미야자끼현에서 20대의 청년이 자기 가족 3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오사까부에서는 한 녀성이 낳은지 2개월밖에 안된 자기 자식을 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악화되는 생활처지

《물질적번영》에 대해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빈부차이는 더욱 심화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생계비는 가뜩이나 빈궁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다.

올해 1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살림집평균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6% 또 인상되여 제 집을 쓰고 살 생각조차 못하고 한지에서 사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났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도매가격이 1.4% 올랐는데 그중 에네르기가격은 5.1% 비싸졌다 한다.

또한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 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3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또 올라 2008년 12월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생계비가 계속 높아지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

1월초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나라의 극빈자수가 2년전에 비해 50%나 증대되여 60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1월 중순에 발표된 유럽동맹 통계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동맹성원국들에서 약 8 000만명이 빈궁선이하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있다 한다.

무질서와 혼란

자본주의세계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은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4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서 달리던 뻐스가 자동차를 들이받아 14명의 사상자가 난데 이어 5일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광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25명이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한편 최근 벨지끄의 브류쎌교외에서 2대의 려객렬차가 정면충돌하여 20명이 죽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으며 뛰르끼예의 서북부지역에 있는 한 탄광에서는 가스폭발이 일어나 17명이 굴속에 묻히는 참사가 빚어졌다.

일본에서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년평균 5 000여명의 사망자가 나고있다 한다.

제반 사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남아있는 한 만연하고있는 온갖 사회악은 결코 사라질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무모한 단계에 이른 일본의 독도강탈책동

최근 일본정부가 대외정책문건인 《외교청서》에 독도《령유권》을 명기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회과목교과서들에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래년도부터 사용될 5종류의 초등학교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표현이 삽입되거나 독도를 일본령해안에 포함시킨 지도가 첨부된다고 한다.

이로써 독도를 한사코 가로타고앉으려는 일본의 야심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 현실은 일본이 조선재침을 침략적대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잡고있으며 새 세대들에 대한 력사교육도 그들을 군국주의재침의 돌격대로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타당한 력사적, 법적근거가 없는 완전한 생억지이며 궤변이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라는것은 어느모로 따져보나 절대로 부인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다른 나라들의 권위있는 학자들도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독도는 조선의 령토라고 주장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 후가이도의 교직원조합이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가 아니라 솔직하게 조선의 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선것은 일본지배층이 제창하는 독도《령유권》설의 부당성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정부는 부정할수 없는 력사적진실과 객관적현실을 무시하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계속 강짜로 우겨대고있다.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조선재침론, 현대판《정한론》이다.

오늘의 국제적환경, 특히는 변화된 조일관계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정한론》을 들고나왔던 19세기 후반기나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가로타고앉아 통치하던 20세기 전반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일본은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오명과 수치를 벗지 못하고있다.

그런 속에서도 일본이 호시탐탐 노려온것은 당당한 강국으로 일떠선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이다. 군국주의《비료》를 먹으며 침략적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대륙진출의 관문인 우리 나라를 또다시 가로타고앉기 위한 새로운 재침론을 절실히 요구하여왔다. 이로부터 일본반동지배층은 독도《령유권》이라는 외피로 감싼 새로운 조선재침론, 현대판《정한론》을 들고나오고있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직접적으로 우리 나라의 자그마한 섬인 독도를 가로타고앉으려는 교활한 야심을 반영하고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조선령토를 군사적으로 강점하려는 강도적 야망을 담고있다.

일본은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고집하면서 조선재침을 위한 명분과 구실을 만들려 하고있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주장하면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부각시키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

독도《문제》를 의도적으로 꾸며낸 일본은 독도강탈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다. 일본이 외교문건들에 독도《령유권》을 박아넣고 독도《문제의 외교적해결》에 대하여 자주 입방아를 찧고있지만 본심은 무력행사를 통하여 강압처리하자는것이다.

그러한 움직임들은 이미전부터 나타났다.

1998년 10월에 진행된 제143회 일본국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일본국민이 자기 나라 《령토》인 독도에 갈수 있는 자유가 저지, 배제당하고있는 형편에서 《그 배제하는 군대를 격파하여 외국군대의 〈침략상태〉를 배제하는것이 〈자위대〉의 임무》라는 호전적인 망발들이 서슴없이 튀여나왔다. 지난해 일본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명기하였다.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는 비밀리에 독도상륙훈련을 진행하는 등 독도를 무력으로 가로타고앉기 위한 범죄적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은 항공《자위대》소속 정찰기를 독도상공가까이로 접근시키였는가 하면 해상보안청소속 순시선들을 파견하여 독도수역을 침범하게 하는것과 같은 엄중한 사태들을 빚어냈다.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행위들이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우리 나라의 고유령토인 독도에서부터 먼저 조선재침의 총포성을 울리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에 의해 항시적으로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는 더욱더 복잡해지고있다.

일본은 부당한 독도《령유권》을 자기 나라 인민들속에 끈질기게 주입시키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감정과 재침의식,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고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일본은 국민의 높아가는 불만과 반발심을 눅잦히는데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설을 써먹고있다. 일본반동세력은 《원래부터 일본땅》이였던 독도를 우리 나라가 《강탈》하였다고 하면서 력사를 외곡하여 자기 나라 학생들과 국민들속에 선전하고있다. 그들은 독도《문제》로 하여 저들 국가가 《치욕을 당하고 국익이 손상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허튼 나발을 불어대면서 일본학생들과 국민들을 독도강탈과 조선재침에 나서도록 로골적으로 부추기고있다.

독도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에 의해 빚어진것으로서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속죄해야 할 과거청산문제이다. 일본의 량심있는 력사학자들도 자기 나라가 로일전쟁당시 조선의 독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 섬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일제의 독도강탈은 그후 련합국의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 그것들에 기초하여 발표된 《련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에 의해 비법, 불법으로 선포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 모든 사실이 《잘못된것》이라고 망발하고있을뿐아니라 과거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독도《령유권》을 《증명》하는 거짓자료들을 만들어내여 내돌리고있다. 그리고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령토강탈구실밑에 《자위대》무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에 의해 조일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해지고있다.

현실은 이렇다. 일본의 날강도적인 독도《령유권》주장은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법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파산을 면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독도강점의 길에 나선다면 그것은 곧 일본의 자멸을 앞당기는것으로 될것이다.

조선재침은 허황한 망상이다.

리 경 수

ㄱ-01070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